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김은혜 (장로회신학대학교)

- I.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 II. 한국 사회의 청년문제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 III. 교회 청년이탈의 원인과 그에 대한 신학적 분석
- IV. 교회청년이탈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으로서 성육신적 인간주의
- V. 나아가며

• ABSTRACT •

A Study of the Crisis of Korean Church Based on the Issue of the
Breakaway of Young Adults and a Christian Ethical Answer

Kim, Un-hey

The breakaway of the young adult from the Korean Church is a core aspect of the crisis of Korean Churches because the young adult is our future and hope. Korean Protestant Churches are already going off track due to the overbearing hierarchy of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young generations are leaving the church without saying a word. In the overall social crisis in Korea, the disappointment of the young adults due to distrust and lack of communication is deeper than what people expect. If we do not give enough attention to the declining population of these young adults we will not be able to stop the rapid aging of Korean churches. Additionally, the problem is that the denominations and churches only respond superficially, when they are supposed to give full attention to solve the ongoing crisis for the breakaway of the young adult.

This quiet and radical movement of the young adults in relation to Christianity approach not only Korean churches but also North American and Europeans churches as an inevitable challenge and task. We have to look back to ourselves and figure out what has led the young adults to choose a desperate escape rather than a internal reform.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concentrate on the reasons why young adults are leaving churches in Korean in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focusing on incarnational humanism.

Key words: The breakaway of young adult from the Korean Church, the Theology of Life, the Problem of Young Adult in Korean Society, Incarnational Humanism, the New Shift of Theology.

I.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한국 교회¹⁾의 청년 이탈은 한국 교회 위기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청년 이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는 이미 진취적 계층의 이탈에 직면해 있고, 청년 세대들이 침묵 속에서 교회의 품을 떠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청년들은 불신과 불통으로 인해 교회를 향한 실망이 깊어지고 있다.²⁾ 이렇게 청년의 감소 추세를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 교회의 노령화는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앞날은 암울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교단들과 교회들이 청년위기를 알면서도 피상적, 형식적 대응만 할뿐 정직하게 청년문제를 대면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는 자세와 청년문제에 대한 진정어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조용한 그러나 급진적인 교회이탈은 한국 교회 뿐 아니라 이미 동일한 현상을 겪었던 북미와 유럽 교회 등 현대 교회의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과제이다. 무엇이 청년세대로 하여금 내적 개혁보다 오히려 절망적 이탈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한국교회는 성찰과 반성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 청년세대의 교회 이탈이라는 현상을 중심에 두고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성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청년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최근 가속화되는

1) 이 때 한국교회는 한국개신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한국교회청년문제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구분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보편적 청년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 청년현실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개념으로 한국교회와 한국개신교를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2)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국교회에서 청년 비중은 5%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에 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내 청년대학부 인원은 2009년 말 기준 16만 2786명으로 전체의 5.8%다.

교회 청년들의 감소 추세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청년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하여 교회 청년이탈 현상에 대한 극복 방안을 성육신적 인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게 침묵 속에 교회로부터 조용한 탈출을 감행하는 청년세대와 함께 공감과 소통 그리고 연대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는 삶의 저편으로 고립되어 점점 생활세계에서 무기력해지는 신앙의 무의미성과 형식성을 비판하는 현대 청년들을 어떻게 진정한 교회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성찰하고 대담하고자 한다.

II. 한국 사회의 청년문제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불안한 국제 정세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IMF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 UN 사무총장 배출, K-pop 열풍 등을 통해 한국 사회는 충분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심각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도 82조에서 246조원으로 추산된다.⁴⁾ 한국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갈등은 각 영역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깊은 상호 불신을 겪게 하며 더 이상 소통되지 않는 사회를 일삼

3) 오혜진,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우리文學研究』, 제38권 (2013), 457.

4) 『연합뉴스』, 2013. 8. 21. “한국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에서 경험하게 한다. 한국사회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세대 갈등을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세대 갈등이 한국 사회에 이슈로 제기되는 이유는 급속한 근대화의 배경에도 그 원인이 있다. 압축적 발전과 돌진적 근대화는 많은 부작용과 상처를 남겼고 뿌리 깊은 사회갈등을 양산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⁵⁾ 자유민주주의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한 ‘남남 갈등,’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갈등,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권력의 배분의 차이와 파당적 갈등은 오늘날 세대 갈등과 함께 청년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불통의 사회 속에서 청년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또한 그 폭이 큰 사회일수록 세대 간 차이는 벌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차이인지 아니면 갈등으로 연결되는 차이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세대 간 차이가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갈수록 ‘불확실성의 시대’로 변해가는 사회적 상황이 청년들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은 그들의 일상생활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대의 체념과 죄책감은 사회공포증을 낳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하는 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한다.⁶⁾ 더욱 심각한

5)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중앙sunday, 『한국 사회 대논쟁』 (서울: 메디치, 2012), 5-6. 한국은 불과 6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근대 국가로서의 발전을 일구어낸다. 1940-50년대에 근대 국가 형성, 1960-80년대에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1990-2000년대의 민주주의 이행과 경제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것은 2000년 이후 20-30대의 청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다. 2011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 사망자 가운데 47.2%가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20대가 전체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삶을 비관적으로 여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상대적으로 더 잦다는 얘기다.⁷⁾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로 청년들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방치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과 경제 침체의 여파는 누구보다도 청년세대들이 실감하고 있다. 지표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업률, 비정규직의 끝없는 양산, 빈부 격차의 양극화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느끼는 위협도는 생각보다 깊다. 불확실한 미래가 이들의 삶에 고착되어 감에 따라 절망은 더 깊어져간다. 고용과 삶의 불안정성 속에서 자라나고 살고 있는 이들의 개인적 경험은 윗세대들이 누렸던 번영과 안정이 자신들에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다.

이러한 청년 불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위로’와 ‘치유’의 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을 나왔음에도 할 일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고통받는다.⁸⁾ 물질적 고통뿐 아니라 패배의식으로 인한 정신의 황폐함과 절망으로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자본주의는 낭만적인 힐링까지 상업화하여 미디어마다 마약과도 같은 거짓된 위로와 치유들이 넘쳐난

6) 인터넷 취업포털 잡코리아 구직회원 2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직 활동 중 스트레스로 질병을 앓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1.6%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가장 심하게 앓은 질병으로는 우울증이 52.7%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7) 『이데일리』, 2012. 9. 13. “부끄러운 자살공화국, 20대 사망자 중 절반이 자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197606599659792&DCD=A00703&OutLnkChk=Y>

8) 정신과적 치료와 더불어 멘토라 불리는 사회의 어른들은 청년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석훈의 『88만원세대』 등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다. 오혜진, “순용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456.

다. 그러나 청년 문제는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
를 실현하고자하는 의지 없이 거짓된 위로나 상업적 희망으로는 불가능
하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청년문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청년기란 청소년기와 30대 성인 사이로 정의된다. 심리
학자 광금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의 청년의 범주
는 이보다 더욱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다.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성인과 청소년의 중간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결혼·직장·연
애를 포기한 ‘삼포시대’를 겪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30대 성인층은 많지만
이들을 기술할 단어는 없다.⁹⁾ 그러나 현재의 대부분의 연구는 청년에 대
한 현실인식 수준에 그치고 청년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학 연구에서도 교회 청년이탈에 대한 간단한 설문에 따른
분석만 있을 뿐 청년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없다. 최근 들어 청년
문제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지도층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
세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구직과 취업이라는 치열하고 냉정한 관문
이 주는 압박과 무한경쟁 속에서 상존하는 불안과 잠재하는 실업의 상황
을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단순히 ‘위기’라고 말하
기엔 그것은 이미 강건하게 고착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청년기는 더 이상 기성세대가 가진 이미지인 ‘청춘예찬’ 속의 가슴
이 뛰고 푸른 꿈을 추구하는 그런 청년 시절이 아니다.

9) 광금주, 『흔들리는 20대: 청년기 생애설계 심리학』(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29-33. 이 시기는 일과 사랑의 성공과 실패를 밀거름으로 성인의 삶을 준비 하는 시기이고 이러한 중간기로 인하여 그 특징은 첫째, 불안정의 시기, 둘째, 자기중심 적 시기, 셋째, 사이에 낀 시기, 넷째, 가능성의 시기로 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청년들을 청소년후기(late adolescence) 혹은 젊은 성인기(young adulthood)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정의는 모두 현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을 지칭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즉 한국 사회의 청년은 40대 이하를 전부를 가리키거나 18-22세를 지칭하기도 하는 등 혼란한 개념으로 존재한다.

현재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방법도 과거의 기성 시대와 다르게 모색한다. 청년들은 대결이나 저항과 같은 영웅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탈영웅적 세대¹⁰⁾들로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 기성제도 전체를 전복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상향적 정치적 비전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생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화 시대를 이룬 기성세대들과는 다르게 이들에게는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도 타도해야 할 국가권력도 없다. 오직 물신인 신용카드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신용카드만이 그들의 유일한 적이다. 너무나 거대해진 구조는 보이지 않고 너무나 견고해진 구조에 저항할 힘도 없다. 청년들은 저항하는 대신 순응한다. 순응과 좌절 그리고 포기에 길들여져 가는 청년들은 '내 탓이오'를 되뇌면서 '자기만의 방'으로 은둔하고 우울증에 빠져든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피로사회'라 정의하며, 성과 중심의 사회와 긍정이 넘치는 사회가 주는 정신적 피로감이 우울증과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현실을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은 현대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에 천착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제품'으로 변질된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토익(TOEIC)과 오픽(OPIC)으로 대표되는 외국어 구사 능력과 봉사활동이나 공모전 활동과 같은 '계량화'된 모습들이 자신을 결정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10) 문화사회학자 카스퍼 마스(Kasper Maase)는 유럽의 68혁명 이후 세대형성의 기제가 변화했다고 보면서, "탈영웅적인 세대"들의 시대가 왔다고 표현한다. '탈영웅적'이라는 말이 지칭하는 바는 단순히 청년들이 탈정치화되었다는 의미보다는(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정치적 변동이 청년들의 자기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영웅적인 세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 부정, 이상향(Utopia)에 대한 믿음, 역사적 사명과 사회적 소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희생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도 실종된다는 의미이다. 전상진,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1호 (2010), 138.

지적한다.¹¹⁾ 이러한 학문적 논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절망과 좌절의 목소리가 개인들의 문제나 실패와는 상관없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짚어내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런데 청년세대는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 대부분 체제 순응, 좌절, 포기, 반항, 분노하지만 무작정 절망하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스스로 나름의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타진하며 불가능의 경계를 해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에게 세대라는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좌표를 제공하고 각 개인의 정체성의 기준이며 집합적 의미와 공동의 해석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론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행위의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강력한 정서적 혹은 일체감의 기반을 제공할 뿐이다.¹²⁾ 이러한 정서적 연대는 때로 그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렵고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386세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제기함으로써 기존의 세대론과 다른 상당히 도발적이고 대안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88만원 세대론과 같이 이러한 세대론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정서적 일체감은 이러한 의미에서 비일관적, 비연속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적 일치를 지향했던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변화를 위해 청년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공감의 연대이다. '나'라는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의 출발이 필요하다. 사실 지금의 20대는 모두에게 욕먹는 존재다. 우파는 청년들이 높은 보수만 바라고 험한 일은 하기 싫어한다고 타박을 놓고, 좌파는 물질적인 욕망에만 신경

11) 이기형,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대학 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제5권 (2011), 270-71.

12) 전상진,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144.

쓰고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과거의 대학생들과는 다르게 엘리트나 지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잉여’라 불린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잉여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¹³⁾ 하나가 아니라 둘, 둘이 아니라 셋, 이렇게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들려주면서 ‘우리’가 같이 고통 받고 상처받고 있다는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¹⁴⁾ 그러므로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청년세대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 청년들과의 소통을 회복한 공감적 연대는 바람직한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를 향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한국교회가 교회 청년이탈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청년들과의 일방적 대화를 지양하고 ‘타자지향적인’ 대화와 청년세대의 감정과 특징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비판적 자세가 필요하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20대에 대한 주류 담론은 답답하기 이룰데 없고 종종 무서울 정도로 그들을 단죄하는 경향이 있다. 윗세대는 기본적으로 팽창하는 사회 속에서, 성장의 여지가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청년들은 배제와 탈락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¹⁵⁾ 한국 교회는 질타하고 가르치려는 위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일깨워주고 복돋워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객체가 아닌 교회의 주체이며 적극적 참여자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교

13) 이기형,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대학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270.

14) 오혜진,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484.

15) 이기형,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대학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275.

회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현실에 공감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먼저 그들의 아픔과 절망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이 희망을 만들어 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지도자들의 청년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청년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청년이탈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청년세대들이 현재 자신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의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노출되어 있는 일련의 긴요한 이슈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¹⁶⁾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청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년세대의 삶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희망과 절망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려 깊은 통로와 성찰적인 화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청년에 대한 실제적 관심은 교회의 미래를 밝힐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갈등을 줄여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불안하고 분노하며 아파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의 소통과 공감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희망의 전제일 것이다.

III. 교회 청년이탈의 원인과 그에 대한 신학적 분석

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5회기 총회정책협의회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복음화율은 20%이고,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20%가 넘는 것에 비

16) 『프레시안』, 2010. 12. 24. 오늘의 '개념' 20대를 대표하는 김예슬은 많은 이들이 20대들이 유아 상태에 머문 채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언어가 없고- 언어가 없으므로 세상을 읽지도 세상에 개입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 속에서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언어로 사고하고 있다. 이기형,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대학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273에서 재인용.

해, 30대는 10% 안팎, 20대는 3.7%, 10대는 4%에 불과할 정도로 10대와 20대의 반기독교 정서는 기성세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10대와 20대가 기성세대가 될 때 선교는 사막화되어 서구교회의 몰락 절차를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¹⁷⁾ 올해 1월 기독교보에 의하면 예장통합교단은 교회 내의 지도층과 청년들의 세대 간에 사회적 이슈에 따른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¹⁸⁾ 이처럼 청년들의 빠른 교회이탈은 북미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었다.

심각한 교회 청년이탈 현상에 대하여 몇몇 선교단체는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존 교회가 청년·대학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의 대안은 대체로 재정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의 소망은 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교회 기성세대의 가장 큰 오류는 역시 위의 연구에 나타나는 일반 사회와 동일하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¹⁹⁾ 교회청년들은 물질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

17) 고용수,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5회기총회정책협의회, 2010년 10월 21-22일.

18) 『기독교보』, 2014. 1. 9. "한국교회, 2014년 걸림돌을 제거하라 3 - 교회 내부 요인."

19) 『국민일보』, 2011. 2. 7. 25면. "한국교회 떠나는 청년들 '왜 비전은 보여주지 않고 출석만 따지나요?' 청년들의 대답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교육과 양육 프로그램 등 시스템으로 청년들이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 쌓여서는 세상의 영양분이 될 수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본인지를 심장 깊은 곳까지 채워줘야만 삶이 바뀌죠."(김광희, 34세, 회사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지 알면 알수록 헌신하게 되고, 헌신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건데, 교회가 청년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있나요?"(이은비, 28세, 연세대 CCC 간사) "따뜻하게 환영하고, 진지하게 삶을 나누고, 세속적인 것보다 가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 주는 교회를 청년들은 원합니다."(지현주, 35세, 방송작가)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여럿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참 제자를 키워주세요."(대학생)

답을 얻고자 했고 방황하는 자신들의 삶을 진정한 방향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복음적 가치에 목말라했으며 불안한 자신들의 현실의 삶의 변화를 열망했다.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들에 얽매어 삶에 지치고 경쟁에서 배제되고 그렇다고 구별되게 살지도 못하는 교회 청년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생활세계의 현존하는 삶을 의미있게 해주는 진정한 가치를 교회에서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를 교육하지 못한 교회의 신앙과 신학이 문제다. 교회의 신학이 지나치게 죄론 중심의 구원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생 이후의 영원한 삶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생활세계에 대한 유의미성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신앙적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교회에서 청년들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와 올바른 신앙적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최근 서구사회의 문화 현상을 대표하는, “영성을 추구하나 종교적이지는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는 표현은 북미와 유럽의 청년세대들이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종교는 꺼리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갈급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삶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교회 청년들 역시 이러한 문화적 변화 속에서 전통적 교회의 억압적인 제도나 교리적 강요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인생을 주도할 만한 가치를 교회 안에서 찾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청년 세대가 영적갈망에 무관심하기보다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연구하면서 또한 필자가 수년간 교회 청년들과

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현재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불안’이다. 청년들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처절한 현실에 대한 그들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갈급함이 깊을 수 있다. 어떻게 영성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한국교회가 이러한 청년세대의 갈망에 시급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응답하지 않을 때, 청년들은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의 청년들은 교회사역의 인적자원으로 지쳐가거나 아니면 개인적 신앙에 집착함으로써 점점 사회와 고립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생활세계에 무기력한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 교회청년들의 반응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 삶의 자리에서 깊게 뿌리 내릴 때 사회 속에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삶과 괴리된 추상적 영성을, 생활세계와 떨어진 관상적 영성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오늘의 삶 속에서 기독교 진리에 복종함으로 어떻게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인문학에서까지 종교성 혹은 영성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주의(휴머니즘)²⁰⁾와 영성의 만남이 물질중심의 서구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²¹⁾ 이제 세속적 인간주의는 다양한 영적인 방식으로 생 이후의 삶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신이 없는 선한 삶의 차원을

20) 휴머니즘은 인문주의, 인도주의, 그리고 인간주의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의 신학적, 철학적 담론을 고려하여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인간주의로 통일하였다.

21) 『국민일보』, 2013. 2. 14. “NCCK, 목회자인문학 전국모임.”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도 인문학공부가 붐이다. 최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다루는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상황에서, NCCK에서는 목회와 인문학의 만남을 기획하고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르쳤다.

발전시켜 가고 있다. 인문학에서 인간주의는 인간이 인간다움(인간성)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²²⁾ 이렇게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인간주의는 근대에 논의된 이성 중심의 무신론적 인간주의를 넘어 마음, 감정, 영성 등과의 관련 속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교리적 믿음이나 제도에 갇힌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열정을 오히려 무례함으로 생각하고, 삶을 투자하지 않는 열심과 실천이 없는 궤변은 진리에 대한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성세대의 신앙을 혹독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신앙과 삶의 괴리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문제점들은 첫째, 청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의 상실과 회의, 둘째, 생명력을 상실한 제도종교의 형식주의와 교리적 경직성, 셋째, 청년들을 위한 책임있는 훈련과 양육의 부재로 시대에 부응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²³⁾ 이제 한국 개신교는 행위보다 믿음의 우위성을 가르쳐온 개혁교회의 전통을 다시 성찰하고 그러한 전통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삶을 신앙의 세계로 불러 들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학적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기독교 인간주의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숙고가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인간주의는 기독교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즉 기독교 생활 속에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입장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²⁴⁾

특히 신학적 담론 속에서 이러한 인간주의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인

22) 여종현, “근대적 휴머니즘에서 탈-근대적 휴머니즘으로-노자의 道사유와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중심으로,” 『존재론 연구』, 4권 (1999), 440.

23) 한국대학생선교회가 2014년 1월 ‘종교생활 및 의식조사’의 결과와 올해 발표된 교회 청년이탈과 한국교회 교인 수 감소 원인에 대한 몇몇 단체들의 조사를 정리한 것이다.

24) 김경한, “기독교 휴머니즘의 역사적 의미,” 『밀턴연구』, 제13집 1호 (2003. 5), 4.

간주의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새로운 인간주의는 ‘인간의 자기완성’이라는 고전적 인간주의와 ‘인간다운 인간의 자기실현’이라는 근대적 인간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연대에 기초한 생태적 인간을 지향하며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이루려는 오래된 인간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형태의 반인간주의와 자기 확장이나 약탈에 근거한 근대의 구성된 휴머니즘을 반대한다.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인간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세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전체 생명과 온 지구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가져야함을 강조하는 기독교 인간주의이다.²⁵⁾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신학은 모두 인간주의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신학자는 근본적으로 누구나 인간주의자이다.

특히 새로운 기독교 인간주의의 구체적 형태로서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생활세계에 대한 긍정과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인간중심의 현대 문화에 뿌리뽑힌 영성적 차원을 다시 숙고할 수 있는 신학적 전환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될 것이다. 즉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삶을 적극적으로 숙고할 수 있는 신학을 재정립하고 삶과 세계의 유의미성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신학적 기초이다. 필자는 성육신적 신학(Incarnational Theology)의 토대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교회 청년들의 이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혁교회의 신학적 이해가 지나치게 교리화되고 형식화되어 삶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에서 분리시킨 한국개혁신학 전통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끝없이 멀어져간 신앙과 삶의 상호의존성을 존중하는 보편적 기독교 사회문화윤리²⁶⁾를 제시할 수

25) 새로운 인간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논문을 참고 하라. 김은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 『장신논단』, 제36집 (2009.12).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청년들에게 불안한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영성적 비전을 제시하고 오늘의 삶의 의미를 제시하지 못하면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생활세계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리를 강요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교회 청년이탈 문제를 통해 제기된 신앙과 이성, 교회와 생활세계 그리고 교리와 영성의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응답으로 성육신적 인간주의를 좀 더 논의해 보고자 한다.

IV. 교회청년이탈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응답으로서 성육신적 인간주의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한 것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인간주의의 새로운 의미를 되살리고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와 생활세계의 적극적 관계성에 응답하고자하는 신학적 개념이다. 이 신학적 개념은 더 나아가 청년현실의 불안과 세대 간의 불통의 관계들을 성육신적 인간주의의 관점에서 생활세계에서의 삶의 의미와 영성적 비전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특별히 세계와 문화에 대한 신학적 긍정으로서의 성육신 신학은 단지 교회 청년현실의 이탈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청년 일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문화를 제시한다. 즉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종교적, 교단적 그리고 세속적 차원의 분리를 넘어서는 하나의 보편적 인간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본회퍼의

26) 기독교 보편윤리는 근대의 편협한 이성 중심의 토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감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연대에 기초한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다름과 다양성을 부정하고 억압하거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성찰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성육신적 신학은 더욱 온전한 형태로 메시아로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체적 자기계시를 부정함 없이 기독교신앙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을 가능하게 해석학적인 인식론을 제공한다. 즉 본회퍼의 신학은 믿는 자들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의 개념을 진지하게 선택함으로써 성육신적 인간주의의 기초적 형태를 제공한다.

짐머만에 의하면,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현대사회 속에서 서구문화의 정체성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사회문화 안에 현대기독교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이를 더욱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든다고 한다.²⁷⁾ 그는 무엇보다도 서구 현대의 공적 담론에서 종교적 감수성을 상실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현상과 종교적 감수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⁸⁾ 이러한 종교적 감수성의 상실은 서구문화를 극단의 반인간주의로 이끌었다고 분석하는 짐머만에 나는 동의하며 현대청년들을 통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영적인 가르침으로의 재귀를 분석하고 초월성과 관계된 정체성과 사회성을 재발견하려는 욕구가 새롭게 일어나는 시대적 특징에 신학이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문화 속에 나타나는 종교성의 부정과 초월성의 제거는 결과적으로 비인간화와 과잉인간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근대문화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성육신적 인간주의의 관점은 한국사회 청년들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발견하기 위한 새로운 신학적 책임에 응답할 수 있는 적절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인간주의적 현상이 전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팽배해진 현대사회에 신학이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나친 구원 중심의 신학과 창조신학적 성찰

27) Jens Zimmermann, *Incarnational Humanism A Philosophy of Culture for the Church in the Worl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2), 10.

28) 위의 책, 16.

의 결여로 인해 신앙이 생활세계에서 무기력해지는 한국교회 현실을 성찰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생활세계에서의 삶의 가치를 긍정하고 적극적인 신앙과 삶의 가치를 관계맺도록 돕는 신학적 관점, 즉 성육신적 인간주의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회퍼 신학에 의존하고 있는 짐머만의 성육신적 인간주의 개념을 한국교회 청년이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짐머만이 근현대 문화 속에 제거된 종교성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는 종교적 감수성에 대한 서구 청년들의 열망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청년과 교회청년문제의 공통분모인 불안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적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불안이 깊어지고 급기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이탈 문제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더 나아가 삶의 구체성의 해답을 위해 교회를 떠나지만 여전히 영적 갈급함을 호소하며 불안한 방향이 지속되는 한국교회 청년이탈 문제에 교회와 생활세계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영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짐머만의 성육신적 인간주의의 신학적 기초는 이미 본회퍼가 지적한대로 성속(聖俗)의 분명한 구분 없이 세계와 통합으로서의 기독교의 신앙과 삶의 성례전적이고 참여적인 개념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²⁹⁾ 즉 이러한 참여적이고 성례전적인 신앙은 성속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속(俗)의 깊이의 차원으로 성(聖)을 제시하며 교회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참여적이며 영성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슈바이커의 지적처럼, 현재 탈초월적 인문주의는 동시에 인간중심주의와 세속주의로 흘러감으로 인간만의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29) 위의 책, 22.

목적에 제한할 방법이 없으며, 이는 인간을 넘어서 과잉인간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³⁰⁾ 따라서 근대가 종교성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인간주의와 혹은 과잉인간주의를 비판하면서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이 사회문화 속에서, 생활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대안적 가치와 도덕적 질서를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주의를 추구한다.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이러한 인간성과 종교성의 극단적 고립과 분리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삶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의 상실로 나타나며 이러한 분리의 결과가 기독교적 관점 뿐 아니라 비기독교 관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독교 인간주의야말로 모든 인간주의의 원형이고 세속적 인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차원의 인간의 존엄성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교회적 제국주의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사회의 공적 선을 지향하는 사역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³¹⁾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21세기 대전환의 시대에 점점 심화되는 비인간적인 힘의 현실 앞에 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복음의 능력을 밝히는 핵심적인 기독교 사상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회문화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밝히는 중요한 신학적 기초이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동시에 인간화의 힘이다. 복음 즉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지 하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으로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³²⁾ 즉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삶의 의미와

30) William Schweiker, *Theological Ethics and Global Dynamics: In the Time of Many Worlds* (Malden, MA: Blackwell Pub, 2004), 202. 이를 inner-worldly humanist라고 명명했다. 인간에 대한 긍정을 니체는 초인으로 푸코는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하이데거는 존재의 운명이라 불렀다. 이는 모두 슈퍼-인간, 초월적 인간에 대한 개념들이다.

31) Jens Zimmermann, *Incarnational Humanism A Philosophy of Culture for the Church in the World*, 16.

32) R. W. Franklin and Joseph M. Shaw, *The Case for Christian Humanism*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91), x.

방향을 상실한 채 교회를 떠나려는 청년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연대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세계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긍정하면서 대안적 삶을 위한 인류 보편의 문화윤리가치³³⁾를 생산하는 신학적 패러다임을 가능하게 한다.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 진리에 기초할 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성을 기초로 사회문화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건설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생활세계 안에서 교회를 위한 사회문화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세계와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신학적 기초로서 중요하다.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에 나타난 5가지 유형에 대해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니버는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로 유형화하였다.³⁴⁾ 그러나 성육신은 기독교가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³⁵⁾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그리고 개혁신교회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33) 보편윤리는 근대의 편협한 이성 중심의 토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감과 소통을 전제로 하는 연대에 기초한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이 주장하는 다름과 다양성을 부정하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포스트모더니의 성찰들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34)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9. 니버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보면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로 유형화시키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유형은 니버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구체적 답변이다, 즉 문화와 복음과의 역동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그에게 책임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하는 점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큰 줄기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책에서 니버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1.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2. 문화의 그리스도 3. 문화위에 그리스도 4.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 5. 문화변혁자로서 그리스도 등이다. 니버는 이 중에서 너무 쉽게 한 방법으로 절대화 시키는 것을 반대하면서 단일한 기독교적 해답은 없다고 주장한다.

35) Jens Zimmermann, *Incarntional Humanism*, 263.

를 위해, 또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실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재정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자율적인 영역의 문화는 성육신적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³⁶⁾ 즉 주님은 역사적, 물질적, 그리고 일시적 세상을 통하여 오시었다.³⁷⁾ 따라서 실재와 모든 인간의 문화경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독교윤리학 분야에서 성육신의 개념이 새롭게 연구되고 성육신적 인간에 기초한 다양한 신학적 연구들이 개인적인 신앙인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새롭게 발전시키는 신학적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육신적 삶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가치에서 복음의 진리가 재현되어야함을 의미한다.³⁸⁾ 그러나 한국교회의 사사화(私事化)와 물량화로 인하여 기독교의 가치와 복음의 진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그 존재감을 상실할 만큼 미미해졌다. 이러한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교회청년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불안과 고통을 한국사회 청년현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함을 앞의 연구에서 밝혔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청년이탈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한국사회 청년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 전 영역에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하는 문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급진적 자기 정체성의 구체적 실천은 필연적으로 보편적 인간의 존엄의 가치와 만날 수밖에 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학적 관점이다.

또한 성육신적 인간주의야말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안적 관점을 제공한다. 성육신적 인간주의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36) 위의 책, 264.

37) 위의 책, 164.

38) R. W. Franklin and Joseph M. Shaw, *The Case for Christian Humanism*, 9.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역사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육신적 인간주의의 핵심적인 주제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신적차원의 약속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 무한이 유한 속에, 영원이 순간 속에, 자유가 필연 속에, 초역사가 역사 속에 침투하는, 그래서 인간 역사가 영원과 접촉하는 급진적 전환의 사건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은 언제나 인간의 방법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십자가 사건의 원초적 준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 시작된다. 이러한 급진적 신과 인간의 자기 동일화는 인간이 어떻게 가장 인간다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핵심적 흐름은 고대교회의 가르침을 재평가하면서 구(舊)자유주의의 경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으로 축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특별히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인간성”(The Humanity of God)이라는 글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심각하게 숙고하고 하나님을 성찰하였다. 바르트 이후로 기독교적 사상은 그리스도는 온전히 인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고대교회의 가르침의 맥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최근의 선교 현장과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서도 상기되는 사실은 그리스도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와 긴밀하게 동일화되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즉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현존을 근거로 하는 세상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9) Jens Zimmermann, *Incarnational Humanism*, 207.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삶의 새로운 징조들을 보여주는 복음의 한 부분이다. 성육신은 세상 안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과 인간의 통합적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메시지이다.⁴⁰⁾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세계와 인류가 그것의 목적인 바를 완성하는 길을 이끄는 데 참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⁴¹⁾ 그러므로 성육신적 인간주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세상적인 옷을 입고 인류에게로 왔다. 창조에 대한 성서적 교리를 통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성육신의 중심적 패러다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⁴²⁾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 실재로서의 세계 즉 지구와 인간 육체와 그것의 감각 등 모든 것은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교회는 가장 초월적 경험을 표현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와 불과 빵을 사용한다. 가장 세속적인 그러나 거룩한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이 성육신되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회복시키며 인간화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이며 결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⁴³⁾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과 회복하여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현되고 인간이 된다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해, 성육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재회복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한다고 확신하였다. 이레니우스는 초대 교부 중 처음으

40) R. W. Franklin and Joseph M. Shaw, *The Case for Christian Humanism*, ix.

41) 위의 책, 206.

42)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1-14)

43) Don S. Browning, *Reviving Christian Humanism: The New Conversation on Spirituality, Theology, and Psych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51.

로 성육신의 놀라움에 대해 흥분했었고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를 밝혔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의 완벽한 초월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교회와 세계가 관계맺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성육신으로부터 유래되는 또 다른 역설은 인간 역사는 영원과 접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의 삶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간주의는 타락을 계속하는데 그것은 부패와 타락으로 나타난 시간은 영원을 다룰 아무 것도 갖지 않지만 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속적 사건과 역사는 거룩한 힘에 의해 침투되고 따라서 인간과 세계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위해 중요하게 된다. 일상의 모든 행위, 먹고 쉬고 일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넘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삶과 관련 없는 신앙과 영성 그리고 생명의 역동성을 상실한 예식과 형식, 그리고 살아있음의 기쁨과 감격을 무디게 하는 교리들에 식상해 있는 교회청년들에게 어떻게 오늘의 삶의 긍정성을 회복하며 삶의 생명력을 제공하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한다. 즉 복음이 생활세계와 삶의 현장에서 그 역동성을 심각하게 잃어가는 현실에서 말씀의 생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적인 인간주의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와 모든 사회를 위해 깊은 성찰을 요하는 신학적 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적 정체성이 보편윤리문화와 만나야하는지에 대한 책임적 응답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청년세대의 절망적 현실과 그 현상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현대 젊은이들이 형식과 교리를 떠나 자유롭게 삶의

44) Jens Zimmermann, *Incarnational Humanism*, 10.

의미와 영적인 것들 추구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게 한다.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신앙이 개인의 도덕적 삶을 약화시키고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신학이 세상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사회되어 가는 것과 같은 현대 기독교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의 토대가 될 것이다.

V. 나아가며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의미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 신앙과 오늘의 삶을 관련시키지 못하고 일상을 무시하는 듯 초월만 사모하면서도 가장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지며,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현장에서 도무지 감동이 없으며, 수려한 기도와 미사어구로 신앙의 세계를 설명하지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일상생활세계에서 한없이 무력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종교의 진정성의 소멸을 경험하는 청년 세대는 우울하고 분노하고 방황하게 된다. 성육신적 인간주의는 진정한 희망으로서의 하나님나라에 대한 믿음은 세계와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삶의 진정성과 신앙의 영역이 관련을 맺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

청년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삶과 세계에 대한 신학적 전통의 결핍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성육신 신학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신학 전통을 무시한 채 지나친 분리주의나 무비판적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한국교회의 신학을 다시 세워야 한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사사회되고

개인화되면서 공적인 영역과 생활세계에서 그 영향력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가는 연유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보편윤리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분리해서 바라본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은 삶과 신앙에 진지한 신학적 숙고와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의 공적인 가치와 연합하고 다양한 선한 이웃들과의 연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어 왔다. 필자는 지나친 구원중심의 신앙관과 죄론을 강조하는 한국 개신교의 신학전통과, 이 세계 속에서의 삶의 의미와 긍정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신앙으로 변화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성만을 강조해 온 교회의 가르침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육신적 인간주의의 의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문화윤리가치를 추구하며 공감과 연대의 윤리에 기초한 성육신적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청년이탈에 대한 원인을 보다 근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특성과 영적 갈망의 복잡한 사회문화의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성육신적 인간주의를 연구함으로써 한국교회 청년문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신학적 성찰과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들며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진리의 자유 속에서 복음을 들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성육신적 인간주의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문화현상으로서 젊은 세대의 영적인 관심과 교리와 제도를 넘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열망하는 청년들을 건강하게 인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흔들리는 20대: 청년기 생애설계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김경한. “기독교 휴머니즘의 역사적 의미.” 『밀턴연구』 13집 1호 (2003. 5), 1-20.
- 김은혜.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 새로운 인간주의를 향하여.” 『장신논단』, 제36집 (2009.12), 179-205.
- 신광철. “한국의 종교, 종교운동-그 열린 쇄신을 위하여,” 제3회 미래사회와 종교성 심포지엄 발제문 (2006. 6. 3).
- 엄기호.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라 말인가: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광주: 푸른숲, 2010.
- 오혜진.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우리文學研究』, 제38권 (2013), 463-488.
- 이기형.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대학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및 세미나』, 제5권 (2011), 269-297.
- 전상진.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1호 (2010), 127-150.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중앙sunday. 『한국 사회 대논쟁』. 서울: 메디치, 2012.
- 한병철.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2.
- Browning, Don S. *Reviving Christian Humanism: The New Conversation on Spirituality, Theology, and Psych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 Franklin, R. W. and Joseph M. Shaw. *The Case for Christian Humanism*.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91.
- Schweiker, William. *Theological Ethics and Global Dynamics: In the Time of Many Worlds*. Malden, MA: Blackwell Pub, 2004.
- Zimmermann, Jens. *Incarnational Humanism: A Philosophy of Culture for The Church in the Worl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2.
- 『국민일보』, 2011. 2. 7. 25면. “한국교회 떠나는 청년들 ‘왜 비전은 보여주지 않고

출석만 따지나요.”

『국민일보』, 2013. 2. 14. “NCCK, 목회자인문학 전국모임.”

『기독교공보』, 2014. 1. 9. “한국교회, 2014년 걸림돌을 제거하라 3 - 교회 내부 요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14. 6. 15. “2030의 외침 ‘30년 후 우리, 지금의 5060들과는 다른 것.’”

『연합뉴스』, 2013. 8. 21. “한국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이데일리』, 2012. 9. 13. “부끄러운 자살공화국, 20대 사망자 중 절반이 자살.”

『이투데이』, 2014. 6. 16. “존경-존중 가치관 다르다…세대 간 갈등 위험수위.”

『프레시안』, 2010. 12. 24. “오늘의 ‘개념’ 20대: 김예슬? 아니 너희들!”

『한겨레21』, 2005. 1. 11. ‘청년의 불안은 생활을 잠식한다.’

http://www.biblenet.co.kr/s07_5.php?bo_table=s07_5&wr_id=75&type=&c-type=&stz=

논문투고일: 2014. 10. 30.

심사개시일: 2014. 11. 14.

게재확정일: 2014. 12. 06.

 • 국 문 초 록 •

한국교회의 청년 문제는 수적인 감소 현상보다 더욱 심각하다. 한국 개신교는 이미 진취적 계층의 이탈에 직면해 있고, 청년 세대들이 침묵 속에서 교회의 품을 떠나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한국교회를 향한 그들의 불신과 교회기성세대들과의 불통은 청년들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청년의 감소 추세를 이렇게 계속 방치한다면 한국교회의 앞날은 암울하다. 왜냐하면 청년이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교단들과 교회들이 청년위기를 알면서도 피상적, 형식적 대응만 할뿐 정직하게 청년문제를 대면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청년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청년세대로 하여금 내적 개혁보다 오히려 절망적 이탈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국사회의 청년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교회청년이탈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조용한 그러나 급진적인 교회 이탈은 한국 교회 뿐 아니라 이미 동일한 현상을 겪었던 북미와 유럽 교회 등 현대 교회의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자 과제이다. 이러한 교회청년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근 가속화되는 교회 청년들의 감소 추세를 주목하고 그 사회문화적 배경과 신학적 배경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자한다. 아직 교회청년문제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청년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초로 교회 청년이탈에 대한 극복 방안을 성육신적 인간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교회 청년이탈, 한국청년문제, 삶의 신학, 성육신적 인간주의, 새로운 신학적 전환
